

# 진보철학자들이 담아낸 한국사상의 핵심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지음 《강좌 한국철학》

유초하  
충북대 교수·철학

만나서 반가운 책이 나왔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의 젊은 연구자들이 낸 《강좌 한국철학》이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는 연령과 무관하게 진보적인 철학연구자들이 모인 곳이다. 동양철학부와 서양철학부로 나뉘어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 철학계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단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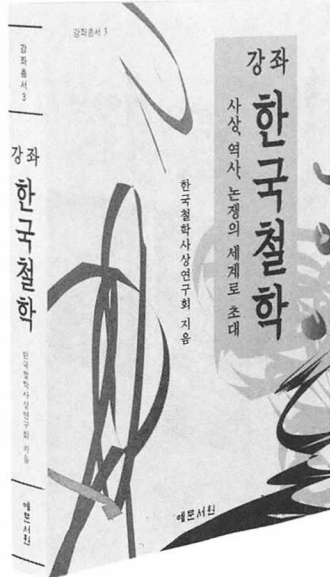
이 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철학통사라고 부를 수 있는 저술로는 최초로 나왔다. 유교·유학, 불교, 도교, 고유사상, 서양철학 등 한국사를 채워온 각 유파의 사상들을 고대에서 현대까지 학파별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강좌 한국철학》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썼다. 철학에 대해 아무런 밑그림을 그려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이나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제로 설정된 모든 유파·학파의 사상에 대해 이론적·실천적 핵심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담아내려 애쓴 흔적이 또렷이 드러나 있다.

### 한국철학사의 각종 논쟁 요약

이 책은 철학 내지 한국철학에 대한 일반적 선입견을 씻어내는 데 상당히 기여하리라 믿는다. 철학이란 실상 삶에 가깝고 삶에 속하며 삶 자체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사에도 어지간한 유럽 나라들에 못지 않은 수준의 철학적 사유의 전통이 내용과 방법의 양 측면에서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인식을 넓히는 교양서의 성격을 질게 지닌다. 그러면서도 서술의 방법이나 관점 등에서 전공자들에게까지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기획의 기본구도에서부터 참신한 데가 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엮여졌다. 제1부는 한국사에서 생명력을 발휘해온 사상 유파들을 크게 다섯 갈래로 묶어서 각각에 대해 주요 학자, 이론적 핵심, 형성배경, 사회정치적 지향 등을 총괄적으로 요약했다. 제2부는 사상적 한국사를 7개의 시대로 나누고 각 시대 주요 학파의 사상을 각론적으로 밝혔다. 제3부는 한국철학사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장식한 각종 논쟁을 9세기에서 현대까지 열거지를 잡아 그에 대해 철학적



· 정치적 맥락을 접맥시켜 해명했다. 이들 세 부분과는 별도로 〈서설〉에서는 한국철학의 내용, 연구방법, 현실적·역사적·의의를 압축된 표현으로 유효하게 논했다. 내용 중 좁은 의미의 '한국철학사'에 해당하는 제2부는 전체의 절반쯤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철학사'로서는 매우 입체적인 조명을 담았다.

다른 내용이나 서술의 방식에서도 이 책은 몇 가지로 매우 산뜻한 느낌을 준다. 철학사상을 관념적 연산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역사적 현실과 자연스럽게 연관지어 설명함으로써 '논리적' 의미와 함께 '실질적' 의미를 요령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나온 한국철학사들이 대개 고대와 중세에 치우쳐 다룬 것에 비해 이 책은 근대와 현대에 높은 비중을 두었고, 서양 외래철학이나 북한 주체사상까지 다루었다. 특히, 크게 구분된 한국철학의 사상유파들을 중국, 일본, 인도의 경우와 함께 다루어 서로간의 관계와 차이를 밝힘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 참신한 방법 적용

《강좌 한국철학》이 시도한 방법과 절차들이 전연 새로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동안 선배학자들이 원론이나 방법론의 영역에서, 그리고 다양한 특정 주제를 다룬 저술과 개별논문들 통해 개발해 보여준 바를 이 책의 저자들이 원용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철학사 전 영역을 체계적으로 다룬 책

《강좌 한국철학》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씌어

있다. 그러면서도 주제로 설정된

모든 유파·학파의

사상에 대해 이론적 실천적

핵심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 책은 특히

근대와 현대에 높은 비중을

두었고, 서양 외래철학, 북한

주체사상까지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이 이처럼 참신한 방법과 절차를 적용한 경우는 역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집단연구의 결실물이라는 점 또한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에 속한다. 모두 스물다섯 사람의 연구자들이 집필했다. 서술의 관점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이들은 여러 차례 토론을 거듭하면서 동료들과 자신을 바꾸어 나갔다. 이 점 또한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 있어온 여러 시도 가운데 비교적 모범적이다.

이 책이 모든 점에서 우수한 것은 물론 아니다. 우선 모든 글이 균질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서술의 관점이 온전히 통일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연구대상 학자나 학파 및 주제의 사상사적 비중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작은 문제들을 지적하자면 꽤 많다. 원효·정도전·이항·이이·정약용 등 비중있는 철학자들의 사상은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밝혔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단군신화가 정형화되는 시점에 중국 도가사상이 한국사상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든지(99쪽), 15~16세기 사람과 유학자들의 사회정치적 정향을 보편이의 지향의 성격은 생략한 채 계층이익으로만 설명한다든지(157쪽) 하는 것은 약간의 일방적인 해석일 듯싶다. 거기가 드물지만 근대근대 개념이해 내지 언어구사에서 혼동이나 모호함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런 점들은 대개 '강좌'의 형식으로서

피하기 어려운 단순화에 기인할 것이다. 그런만큼 그 때문에 이 책이 흠잡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어찌 '한술 밥에 배부르랴' 내일은 더 나아진 내일의 작품을 보게 되리라.

한국철학 전공자들은 제대로 된 한국철학 통사를 저술하는 일을 오랜동안 학계와 사회에 대한 빛으로 짊어져왔다. 그 여러 사람들의 빛을 이 책을 쓴 젊은 학자들이 첫 번째로 갚았다. 대견하고 장한 일이다.

### 깊이있는 해석과 평가 이뤄져야

철학통사를 쓰기 위해서는 몇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역사적 한국철학의 자료들을 원전으로 두루 읽어내야 한다. 둘째, 다양한 분야와 학파로 채워진 그 철학사상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언어적 이해력 이외에 다시 몇가지의 능력을 함께 갖춰야 한다. 우선 철학사상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전반적 식견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한국사 일반에 대한 이해 및 다시 그에 요구되는 인간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실천비판적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철학·문학·사학·사회과학에 걸친 학제적 소양에 바탕한 일관된 관점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역사적·현실적 철학들을 단순히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깊이있는 해석과 적실성 있는 평가를 동반한 철학사 서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동안 제대로 된 '한국철학사'가 나오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강좌 한국철학》 필자들에게 비해 학문적으로나 연령상으로 선배인 사람들은 이제 이 근면하고 성실한 후배들에게 고마운 빛을 지게 되었다. 집단으로 볼 때 선배보다 못한 후배는 없다고 나는 믿는다. 후배들의 성취를 경하하며, 앞으로의 학문적 정진과 더 나은 결실을 빈다. ❖

예문서원 / A5신 / 472면 / 12,000원